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준결승전

# 페가수스-무등산 생태요양병원 시니어스-금호 허리케인

### 페가수스, 막강 세한기업재규어스 제압 '파란'

#### 내달 1일 무등경기장서 결승전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를 대표하는 '무등기' 왕좌를 노릴 4개 팀이 가려졌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준결승전이 지난 24일 무등중 야구장에서 펼쳐졌다.

준결승 결과에 따라 페가수스와 무등산 생태요양병원이 무등리그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다. 광일리그의 결승전은 시니어스와 금호 허리케인의 대결로 압축됐다.

페가수스는 1년 만에 펼쳐진 세한기업 재규어스와의 리턴매치에서 승자가 됐다. 지난 대회 준결승전에서 세한기업재규어스에 막혀 무등기 탈환의 꿈이 무산됐던 페가수스는 1년 만의 재대결에서 9-7 승리를 거두며 결승행 티켓을 따냈다. 재규어스의 김용신은 5회 투런포를 쏘아올린 데 이어 7회에도 솔로포를 터트렸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파트너스의 기권으로 인해 손쉽게 결승행 진출을 확정지었다.

시니어스는 타요바리스타즈를 6-4로 제압하면서 광일리그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2-0으로 앞선 2회 시니어스의 장병찬이 스리런을 날리며 승리의 발판을 닦았다.

금호허리케인도 시원한 뒷심을 발휘하며 카펫진남V-KOOL을 꺾고 결승 무대를 밟게 됐다. 3회 선취점을 낸 금호 허리케인이 4회말 1-2 역전을 허용했다. 그러나 4회초 4-2로 승부를 뒤집은 금호허리케인이 6회 대거 8점을 만들어내며 승기를 굳혔다.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잔치'의 마지막 무대는 11월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진행된다. 오전 10시 광일리그의 우승자를 가리는 경기가 시작되고, 오후 1시에는 무등리그의 마지막 경기가 펼쳐진다.

한편 아로마라이프가 함께하는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협회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전라남도생활체육회, KIA 타이거즈가 후원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4일 광주시 동구 무등중학교야구장에서 열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 무등리그 세한기업 재규어스와 페가수스의 준결승전. 6회초 페가수스 김상호가 좌중간 안타를 친 뒤 3루까지 달린다 2루로 귀루하며 태그아웃당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ns@

# 강

◇무등기 준결승전

- ▲1경기  
세한기업재규어스 0040201-7  
페가수스 421110×-9  
△승리투수:김상호 △홈런:김용신(5회 2점, 7회 1점·재규어스)
- ▲2경기(기권승)  
파트너스 0000000-0  
무등산생태요양병원 1111111-7
- ▲3경기  
타요바리스타즈 0000301-4  
시니어스 231000×-6  
△승리투수:정재철 △홈런:장병찬(2회 3점·시니어스)
- ▲4경기(6회 시간제한)  
금호허리케인 001038-12  
카펫진남V-KOOL 00021×-4  
△승리투수:김종원 △홈런:이형수(5회 1점·카펫진남)

## “내년엔 더 두꺼운 타이거즈 점퍼 입고 만납시다”

### 선수·팬 1000여명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 사인회·걸그룹 변신 루키·응원배틀 등 다채



챔피언스필드에서 '호랑이 군단'과 팬들의 만남이 이뤄졌다.

KIA 타이거즈가 25일 안방에서 선수단 전원과 팬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행사를 통해 팬들은 직접 그라운드를 밟고 불매 및 덕아웃을 체험하고, 시구 차량 포토존·어린이 티베팅 존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장 이범호를 필두로 윤석민, 양현종 등 선수단 32명이 참여한 사인회도 진행됐다.

내년 시즌 KIA 유니폼을 입고 새로 그라운드에 오를 2016 신인 선수들도 팬들 앞에 서서 새출발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호랑이 군단'의 강렬한 2015시즌을 이끌었던 김기태 감독도 단상에 올라 팬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김기태 감독은 “올 시즌 선수들이 열심히 잘해주었고, 팬분들도 많은 응원을 해주셨다. 감사하다. 다음 시즌 준비 잘해서 내년에는 (가을잔치를 하고) 더 두꺼운 점퍼를 입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밖에 KIA 선수단은 팬들과 함께 ▲열혈 팬 응원배틀 ▲집중탐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응원피켓 콘테스트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의 시간을 즐겼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장기자랑'이었다. 유창식·박준표, 이흥구·고영우 조가 가창력을 뽐내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고, 박준태·오준혁, 김호령·황대인 조도 숨겨진 끼를 발산하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역대 행사를 통틀어 가장 파격적인 무대도 마련됐다.

고졸 2년차 내야수 박찬호와 고졸 루키 박정수가 걸그룹 멤버로 분장하고 등장해 관람석을 술렁이게 했다. 이들은 댄스실력까지 선보이며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사진>

한편 이번 행사는 2015시즌 동안 열정적으로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팬 참여형 이벤트로, 이날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타이거즈 예코백'이 주어졌다.

레크리에이션 참가자를 비롯한 우승 자에게도 다양한 상품이 증정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5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 2015 KBO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김태형 두산 감독과 류중일 삼성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두산 유희관, 김현수, 김태형 감독, 삼성 류중일 감독, 구자욱, 박석민. /연합뉴스

## 삼성 윤성환·안지만·임창용 ‘도박 연루’ 한국시리즈 제외

#### 프리미어 12 대표팀서도 빠져

'도박 스캔들'에 연루된 삼성 투수 윤성환·안지만·임창용이 한국시리즈 엔트리와 프리미어 12 국가대표팀 명단에서 빠졌다.

KBO는 다음달 8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야구 국가대표전 프리미어 12대표팀 최종 엔트리(28명)에서 윤성환, 안지만, 임창용을 빼고 25일 밝혔다. 이들을 대신해 두산 좌완 장원준, 삼성 사이드암 심창민, NC 우완 임창민이 대표팀에 승선했다.

윤성환, 안지만, 임창용은 앞서 이날 발표된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빠졌다. 통합우승 5연패를 노리고 있던 삼성은 얼마 전 소속 선수들의 도박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선수들을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도박스캔들에 연루된 세 선수는 한국시리즈 엔트리는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프리미어 12 명단에서도 빠지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

이태리 가구 전문점 100% MADE IN ITALY

# 소파 식탁 보상판매

타사상품 포함 [www.hong79.com](http://www.hong79.com) ☎ 1899-0240 11월 28일까지

NAVER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SINCE 1990